

# 지구를 부탁해 Z911

부산 무정초등학교

4학년 조유란

“유란아, 할머니 집 뒷산에 큰불이 났데.”

“네? 어떡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괜찮으신 거죠?”

나는 놀란 토끼눈을 하고 엄마 입만 쳐다보았다.

“다행히 할머니 집까지는 불이 옮겨 붙지 않았나봐.”

‘휴.....’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다. 우리 가족은 주말에 할머니가 계신 시골에 가기로 했다. 할머니 집 가는 차안은 항상 설레고 즐거웠다. 뒷산에 가서 도토리도 줍고 매실이나 감도 따고 도시에선 할 수 없는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엔 걱정이 앞서서 빨리 도착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다. 나와 동생은 할머니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창문을 열어 숨을 깊게 들이 마시는 버릇이 있다. 아주 큰 공기청정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상쾌하고 향긋한 향이 코로 밀고 들어온다. 만성비염인 내코가 땡 뚫린다.

“엄마,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아카시아꽃 냄새야.”

엄마도 창문을 내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셨다.

“아빠 어릴 때는 아카시아 꽃도 따먹고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맘껏 놀았었는데.....”

아빠가 잠시 옛날 생각을 하시는 듯 싱긋 웃으셨다.

“맞아요, 10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닐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엄마도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우리를 번갈아 보셨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다. 미세먼지가 심해서 운동장 대신 강당에서 했다. 릴레이 달리기도 재미가 없고 운동회가 시시하게 끝이 나서 실망을 했었다. 엄마는 매일 아침 미세먼지 농도를 체크하시고 마스크를 손에 쥐어 주신다. 갑갑해서 정말 쓰기 싫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만 쓰고 밖에 나가서 벗어 던지기 일쑤였다.

할머니 집에 도착했다. 할머니 할아버지 품에 안기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뒷산에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배 궐초 때문에 큰불이 났고 집까지 그 불이 옮겨 붙을 뻔 했다고 하셨다.

아빠가 어릴 적부터 뛰어 놀던 뒷산이 벌거숭이가 되어 버렸다. 동생과 나는 방학 때마다 할머니 집에 왔었다. 아빠가 뛰어 놀던 뒷산과 개울이 전부 우리 차지였다. 하지만 이제 뒷산은 당분간 올라갈 수 없게 되었다. 100년이 넘는 소나무, 밤나무, 도토리나무, 잣나무 등이 재가 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보다 맑은 공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나무들 덕분이었다고 했다. 나무 한그루가 100톤의 이산화탄소를 먹고 좋은 산소를 배출한다고 했다. 수십 그루의 나무가 죽었으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천 톤의 산소가 없어진 셈이다. 마당 한구석에 작은 나무들이 쌓여져 있었다.

“할아버지, 이 작은 나무들은 뭐예요?”

“뒷산에 심을 나무들이야. 잘됐다 우리 강아지들도 할애비랑 함께 나무 심으러 가자.”

“네! 좋아요. 어서 가요. 맞다! 아빠, 예전에 우리가 묻어 두었던 타임캡슐은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 가서 한번 찾아보자. 나무들은 탔어도 땅속은 괜찮을 거야.”

몇 년 전에 우리 가족은 뒷산에 각자 소원을 적은 다음 타임캡슐을 땅에 묻었다. 산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10년 후에 열어 볼 생각이었다.

우리 가족은 뒷산에 올라갔다. 하얀 재들이 되어 버린 나무들이 밀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가슴을 꼬집힌 것처럼 아팠다. 하찮게만 생각했던 나무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주었는지 새삼 느껴졌다.

“아빠, 여기인 것 같아요.”

나무가 타고 없어져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 아빠가 구덩이를 깊게 파자 비닐에 싸여진 타임캡슐 통이 모습을 보였다. 큰 화재가 있었지만 타임캡슐은 무사해서 다행이었다. 흙을 털어내고 타임캡슐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돌려서 열었다. 쉽게 열리지 않아서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래 전에 막아 두어서 그런가? 잘 열리지가 않네. 우와! 됐다.”

뚜껑이 ‘퐁’ 하고 열렸다. 타임캡슐 안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눈이 부셔서 뜯 수가 없었다. 두 손으로 눈을 가렸다. 빛이 사라진 것 같아 살짝 눈을 떴다.

“무슨 빛이었지? 어?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아빠, 할아버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방금 전까지 있던 할아버지 뒷산이 아니고 도시였다. 어둠이 찾아온 것처럼 캄캄했다. 손목시계를 봤다. 오후 2시 밖에 안 되었는데 한밤중처럼 어두웠다. 조명이 비추고 있는 곳은 다행히 밝았다. 지나가는 또래 아이를 발견했다.

“애, 잠깐만!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길을 잃었어.”

아이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너무 놀라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시커먼 망토를 쓴 얼굴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로봇이었다. 나에게 다가와서 내 얼굴을 빤히 살폈다.

“넌 이상하게 생겼구나. 옛날 책에나 나오는 사람처럼 생겼어.”

오히려 그 아이가 나를 이상하게 여겼다.

“나는 부산에 사는 4학년 유란이라고 해.”

“내 이름은 Z911이야. 여기서는 그냥 지구인이라고 하지. 따로 도시나 나라가 분류 되진 않아.

그 아이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여기 혹시 미래니? 나 미래로 날아 온 거야?”

“니 사정은 잘 모르겠고 지금은 2119년도야.”

“뭐라고? 여기가 2119년도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100년 뒤 미래로 온 거지?”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다.

“사실 너 같은 사람을 책에서 읽은 적 있어. 100년 전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관한 책이었어. 그때는 사람들이 수명이 보통 100년 정도라고 들었어. 그러다가 사람들이 오염시킨 자연환경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게 되자 인공로봇 몸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Z911은 믿기 힘든 말들을 쏟아내면서 얼굴이 어두워졌다. 나는 머리가 빙빙 돌면서 어지러워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떠 보니 아까 그 로봇아이의 집이었다.

“깻어? 넌 과거에서 온 아이가 맞구나. 우린 피곤함을 느낄 수 없어. 몸이 로봇이니까..... 하지만 감정은 있어 뇌만 진짜야. 배고프니? 이거 에너지바야 먹어둬.”

“100년 뒤 미래가 이렇게 변하다니 믿을 수 없어.”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Z911이 잠시 생각하더니 나를 이상하게 생긴 날아다니는 차에 태

왔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큰 우주공장이었다. 로봇들이 자동으로 레인으로 줄줄이 찍혀져 나왔다.

“여기는 인공 몸을 만드는 곳이야. 지구의 공기가 오염 되면서 제일 먼저 폐가 상하고 몸이 썩어가기 시작 했어. 그래서 우린 인공 몸 즉 ‘로봇’을 만들기로 한 거야. 하지만 이마저도 많은 돈이 있어야 로봇 몸으로 바꿀 수가 있어. 우리 부모님은 평생 모으신 돈으로 나만 로봇 몸으로 바꿔주시고 돌아가셨어.”

Z911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나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과학의 날이면 항상 미래의 모습을 상상화 또는 글짓기로 표현하기를 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떠올린 아이들은 단 한명도 없었다. 나조차도.....

“이 곳을 너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 네가 과거에서 왔다고 하니 너에게 희망을 걸어볼까 해.”

Z911은 다짐한 듯 비장한 얼굴로 나에게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무엇이던지 말해봐.”

“그건 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봐. 너희 몫이야. 네가 쓰러진 곳에서 주운 타임캡슐이야. 아마 이것 때문에 네가 여기로 온 것 같아.”

Z911에게 타임캡슐을 받았다.

“Z911, 네가 한 말 꼭 기억할게.”

조심스럽게 타임캡슐의 뚜껑을 돌렸다. 환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마지막으로 Z911의 슬픈 눈과 인사했다.

“유란아, 여기서 잠들면 어떡해? 나무 심느라 피곤했나보구나.”

할아버지가 나를 흔들며 깨웠다. 다시 눈을 떴을 땐 할아버지 집 뒷산이었다.

“할아버지 흑흑흑!”

나는 할아버지에게 와락 안겼다. 돌아와서 너무 기뻐다. 손을 펼쳐보니 에너지바가 꼭 쥐어져 있었다.

“누나, 빨리 와. 나무 안심을 거야?”

동생도 작은 모종삽을 들고 거들었다. 구멍이를 깊게 파고 나무를 심은 다음 잘 자랄 수 있게 발로 꺾꺾 밟아주었다. 해가 산에 안기듯 넘어갈 때쯤 나무심기도 끝이 났다.

“한차례 비가 내려주면 참 좋겠구나.”

할아버지가 굽은 등을 펴고 이마의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실천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다.

‘일회용품 쓰지 않기, 에어컨 대신 선풍기 틀기, 이면지 쓰기, 휴지 아껴 쓰기, 샤워 할 때 물 아껴 쓰기’ 잊고 지냈던 작은 실천을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할아버지, 저 지금부터 환경지킴이가 될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할래요.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지금보다 건강한 자연을 물려줄 거예요.”

나는 결심하고 큰소리로 외쳤다.

“우리 손녀 덕분에 이 할아버지가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겠구나.”

할아버지가 꺾꺾 웃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매년 우리 가족이 심을 나무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공기 청정기 없는 세상, 마스크가 사라진 세상이 된 것 같아 신이 났다. 내가 심은 나무에 아래 타임캡슐을 다시 묻었다. 나무에게 이름도 붙여 주었다.

“Z911, 지구의 미래를 부탁해!”